■ 2024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심의 총평

- 회의명 : 2024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2차 인터뷰심의
- 회의일시 : 2023년 12월 7일(목) 10:00~17:00
- 회의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지하 1층 중연습실

정기대관 심의는 예술가와 극장의 상생 구조를 도모하는 방향 중 하나다. 본 심의는 1차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축제 운영단체와의 만남(인터뷰)을 통해 창(제)작 계획의 적정성, 운영 계획의 적정성, 사회적 역할을 중점적으로 살펴 적합한 지원자를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기준들과 함께, 미래 극장을 위한 극장의 방향성 관련 요소를 제안한 작품을 선별하고, 축제(페스티벌) 사업의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력 및 실행력 소유 여부를 살펴보았다.

12월 7일 1차 통과한 축제사업에 대해 대면(인터뷰)으로 진행하였으며 심의 결과, 2개년 3건, 1개년 15건 총 18건을 선정했다. 지원 단체별로 진행할 축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듣고 질의응답을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원단체마다 축제의 대표 자격이 직접 응하여 운영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묻고 들을 수 있었다. 심의위원 5인의 논의를 거쳐 가(1개년), 가(2개년), 부로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구체적인 심의 기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방침을 따르며 진행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조하길 바란다.

심의의 '절대적인 기준'도 있지만, 심의 현장에서 지원자들의 성향과 예술계의 동향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대적인 기준'도 있다. 이번 심의 역시 이러한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이 양립하며 진행된 심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중점 고려사항과 심의 기준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 * 구성의 다양성: 축제는 예술가와 작품이 회집하는 시공간으로, 축제 측은 여러 작품의 큐레이션을 통해 시대정신과 미래로 향하는 예술의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 작품 선정에 있어서 '다양성'이 돋보이는지, '생산의 가능성'을 통해 신진-중년-노장의 예술가가 지닌 세대별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 '재생의 가능성'을 인식한 재연을 통해 미래의 고전을 잘 형성하는지 등등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살펴보았다.
- * 전통과 실험: 지원단체들은 대부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과 성장해온 축제들이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역사와 전통성을 지녔는데, 심의 과정에서 이를 얼마나 잘 지켜내고 있는지는 물론 변화하는 시대에 어울리는 차이와 실험에 대한 의지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 * 구성원들의 축제 주제 인식과 공유: 축제 측이 표방하는 이슈와 주제를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얼마나 인식하여 그에 걸맞은 자세와 작품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분위기와 장치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 * 변화를 위한 준비성: 경연에서 축제로, 국내에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확장'을 도모하는 축제는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 * 새 세대를 위한 배려: 신진 예술가들의 터진입을 위한 축제의 경우, 윗세대 예술가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계적 상황에 대한 사전 안전 조치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인식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 * 축제 공간(극장)에 대한 파악력: 극장이 지닌 공간적 특성을 잘 활용하고, 이를 작품이나 수행이 과정에 잘 녹여 넣어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공간적 특성을 배려하고 응용한 축제인지 살펴보았다. 특히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함께 운영되는 축제의 경우 공간의 규모와 특성을 작품별로 잘 고려했는지도 살펴보았다.
- * 일정 조율에 대한 준비: 극장 공간과 사용 일정은 한정되어 있지만, 축제의 규모와 일정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특정 기간이 되면 같은 장르의 축제들이 연일 연달아 이어지곤 한다. 이는 축제를 통한 해당 장르의 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의도치 않은 일정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정 조율에 있어 상대적이고 열린 자세를 갖추고 있어, 다른 축제의 일정을 배려하고, 이를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열린 자세를 지닌 단체인지 살펴보았다.
- * 시민 참여를 위한 유도: 축제는 예술가의 전문성과 시민의 호기심 및 관심이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장이다. 그런 점에서 축제마다의 '문턱'도 살펴보았다. 축제 프로그램 중 관객의 유입과 관심도를 높이며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대시민적 프로그램'의 기획과 보유 여부, 교육 프로그램의 준비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관객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도모한 축제가 돋보이기도 했다.
- * 국제교류를 위한 준비성: 축제의 다양성 구성에 있어서 장르간의 협업도 중요하지만, 국가 간의 교류도 중요하다.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은 초청 단체에 대한 확정/미확정 여부이다. 따라서 인터뷰 심의를 통해 방한 '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초청 단체의 방한 여부에 대한 '확신'을 묻고 듣기도 했다.
- * 반성과 개선에 대한 준비: 지원한 축제들은 오랜 시간 동안 역사와 전통을 쌓아왔다. 따라서 전년도의 축제에서의 미흡한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향후 진행할 축제의 개선 사항으로 잘 반영했는지 살펴보았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미래극장'을 표방하며 이를 위한 섬세한 노력과 과정을 예술가들과 도모해나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축제 측의 '사회적 역할'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기후 및 생태, 접근성, 다양성, 예술 현장 기여도, 전통성, 실험성, 사회성으로 대변되며,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이를 위한 기재란이 있다.

각 축제는 역사와 특색을 바탕으로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지만, 한편으로 구체적인 기획·계획보다는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유행하는 특정 코드(예를 들어 배리어프리 등)에

대한 막연한 모방과 답습을 보여주는 지원 단체도 있었다. 축제는 단독 공연보다 사회적 시공간과 호흡하는 시공간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에 걸맞은 축제만의 '사회적 역할'도 향후 보다 개성적으로 담아내면 좋겠다.

심의위원 일동